

Best Learner에게 듣는 학습 전략 - 영어 발표, 자신감을 갖자 -

무대 공포증이 있어서 발표를 잘 못하겠다. 프레젠테이션 사용법을 몰라서, 발표 자료 없이 발표를 하겠다. 두 경우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있어 보이는 것이, 점수를 가져온다.

이재은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1. 무대 공포증?

공포감이 너무 커서, 사람들 앞에서 숨도 못 쉬겠고, 발표는 더더욱 할 수 없다. 이거는 필자가 해결해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미안하지만 전문 학원이를 가는 편이 빠를 거 같다. 다만, "나는 발표를 잘 못하니까, 발표를 하기 싫어져"라는 사람들은 이 글을 읽어라. 대본은 잘 쓰는데 사람들 앞에서 말이 빨라지고 머리가 새하얗게 변한다면 더더욱 읽어라. 두 가지 해결책이 있다.

첫 번째 해결책은, 사람들은 너를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라는 것이다. 실제로 열심히 발표해도 다른 수강생들은 자기 발표만 생각하지, 프레젠테이션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기억도 하지 않는다. 그냥 주장이랑 내용이랑 잘 맞는지만 확인한다. 어휘가 완전히 틀려도 듣지를 않기에 의식하지도 못한다. 궁금하다면 일부러 he 다음에 are 를 붙여보아라. 아무도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교수님이 마지막에 조금 지적해주는 게 전부일 것이다. 그러니까 긴장을 풀어라. 그냥 오목거울을 보면서 내 모습을 요모조모 살핀다고 생각하면서, 여유 있게 시선을 돌려라.

마지막은 프레젠테이션만 보고 대본 없이 다섯 번 정도 녹음하고 듣기를 반복하는 것이다. 생각보다 쉽다.

첫 녹음에서는, 시계는 보지 말고 일단 읊어라. 말도 엄청 빠르고, 빼먹은 내용과 틀린 내용도 많다. 억양도 이상하다. 숨도 안 쉬고 넘어가는 페이지도 분명 있을 것이

다. 그런데 들으면, 대본 내용이 틀렸는지도 알 수 있다.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에서 빠고 더해야 할 부분도 파악된다.

두 번째 녹음에서도 시계는 보지 않는다. 단, 말을 천천히, 또박또박, 억양을 신경 쓰면서 하라. 그렇다고 무작정 느리게 하지는 말고, 속도감을 조절하면서 영어 듣기의 원어민 같은 속도를 조절하자. 당신은 래퍼가 아니다! 억양은 주관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어디서나 먹히는 방법은 있다. 필자의 경우 어려운 단어는 네이버 사전에서 발음을 읽어주는 걸 따라하는 연습도 해본다. 그리고 'R' 과 'L', 'B' 와 'V', 마지막으로 'F' 발음만이라도 정확히 한다면 어학연수 갔다 온 애들처럼 보인다. 그렇다고 침 튀기게 발음할 필요는 없다.

세 번째 녹음에서는, 시간 안에 발표할 수 있도록 스스로 내용을 줄이거나 늘여라. 두 번째 녹음 시간을 보면, 어디에서 더 설명하고 줄여야 할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가급적이면 정해진 시간보다 짧게 끝내라. 그게 더 여유 있어 보인다. 그리고 막상 발표할 때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운동선수들이 연습할 때는, 경기 기록보다 잘 나오게 하는 것처럼 말이다.

네 번째는, 프레젠테이션을 경량화 시키는 작업이다. 녹음을 들어보고,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전부 지워라. 보통 5분 발표에 9개의 프레젠테이션이면 충분하다. 이 중 읽을 페이지는 제목, 서론, 참고문헌, 질의응답 페이지를 제외하면 5개이다. 대체로 서론, 내용1,2,3,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다. 많은 내용이 없다면 페이지를 더 늘려도 되지만 페이지의 내용은 늘리기 전이나 똑같은 것이 좋다. 글보다는 그림을 넣으라는 얘기이다. 빨 내용은 자잘한 설명이나 줄글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착시의 정의는 ~~”라고 쓴 것을 “착시란?”으로 줄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예로, 어떤 구조의 차이를 보이고 싶으면, 글은 제목("~구조의 차이")만 남기고 내용은 다 지우자. 그리고 두 개의 사진을 보여주자. 만약 두 사진의 특정 부분만 필요하다면, 프레젠테이션의 도형과 애니메이션으로 강조하는 효과를 주자. 프레젠테이션에서 글은, 흐름을 위한 것이지, 발표자가 보라고 쓰는 것이 아니다.

다섯 번째는, 리허설이다. 실제와 똑같이 하는 것이다. 만약 마음에 안 든다면 앞의 과정을 반복하자. 그게 전부다. 부끄럼쟁이들은 수줍음에서 벗어날 때까지 사람을 붙잡고 반복하라.

무대를 무서워하는 것에는 답이 없다. 그냥 부딪히는 거 말고는 필자도 답을 모른다. 일단은 해봐라. 그리고 고쳐나가라. 자신이 없어도, 자신감을 보여라. 발표에서만 큰 공작새가 되어라. 이것이 필자가 아는 전부이다. 그렇다고 지나친 자신감으로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지는 말자. 서로 기분만 상한다. 질문을 받을 때는, 긴장하지 말고 친절하고 느긋한 전화 안내원이 되도록 노력하자.

2. 프레젠테이션 시각자료의 중요성

양고 없는 찐빵. 프레젠테이션 시각자료가 없는 발표. 물론 찐빵의 그 하얀 빵이 정말 맛있고 찰지다면, 양고가 없어도 된다. 발표도 마찬가지이다. 전에 고등학교 때, 전교생 앞에서 유명인의 연설문을 10분 내외로 줄여서 발표하는 대회가 있었는데 워낙 원고가 훌륭하다 보니, 손짓 발짓만 잘 해도 좋아 보이긴 했다. 그런데 그런 연설문처럼 사람의 이목을 끌 수 없는 글이라면 프레젠테이션 없이는, 있어 보이기가 참 힘들다.

전에 안락사를 발표하는 데, 내용과 주장이 굉장히 참신했다. 그런데 파란 칠판 앞에서 대본을 잡고 프레젠테이션 자료 없이 얘기하는데, 그냥 작게 보였다. 나쁜 의미가 아니라, 브로드웨이 급의 뮤지컬을 보다가 대학로의 연극을 보는 기분이었다. 감동이 적다는 게 아니라, 그냥 무언가 작아진 듯 보였다. 그리고 다음 차례에는 흔한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다. 아마 다른 사람들도 같은 생각이었을 것이다. 언제 끝나나 싶은 생각이거나 점수를 받기 위해 질문을 고민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도 비슷한 주제를 발표도구인 프레지(프레젠테이션과는 다르지만 굉장히 발표 자료가 예쁘게 보인다. 그러나 효과는 비주얼적인 감흥만큼 좋지 않다. 헛갈린다.)로 발표한 사람은, 왠지 모르게 흥미가 갔다. 지상 외모주의라고 해도 좋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필자만 했을까? 답은 독자들이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한다.

프레젠테이션 발표도구를 쓸 줄 모른다고, 쓰지 않아도 좋다. 하지만, 선물에서 포장된 첫인상과도 같고 발표에서 프레젠테이션 발표도구는 잘 포장된 선물과도 같다.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대본의 내용을 시각화하면서 대본은 더 잘 암기된다. 그러니 시간 아깝다는 생각하지 말고 프레젠테이션 발표도구로 이것저것 만들어보자. 요즘 네이버나 구글 블로그에 프레젠테이션 제작 방법을 설명해주는 곳도 많으니, 어려워 말고 시도하자.